

제 165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조국' -아이치 조선고급학교의 '조국방문' 동행조사로부터
강연자: 야마모토 카오리 (山本 かほり) (일본 아이치현립대학 준교수)

아이치현립대학의 야마모토 카오리 교수의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조국' -아이치 조선고급학교의 '조국방문' 동행조사로부터'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1 월 26 일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야마모토 교수는 본 연구가 2013년 6월에 있었던 아이치 조선중고등학교 고등부 3학년의 "조국 방문"=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하 조선) 방문 동행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연구의 목적이 조선 학교 학생들에게 "조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 학교는 그 설립 과정에서 조선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1957년 이후 조선에서 계속해서 보내온 "교육 원조금, 장학금"은 학교와 조선과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큰 이유가 되었고, 따라서 조선 학교에서의 교육은 "통일 조선"을 지향하면서도 북쪽의 언어, 역사관, 사회관에 역점을 두어 왔다. 그 교육 목표도 "(조선의) 재외국민의 육성"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4세, 5세가 되어 감에 따라 "재일"이라는 현실에 맞는 교육으로 개정되어 왔다. 아이들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살아간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내용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조선과의 관계는 현재까지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고,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국 방문>이 그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아이치 조선중고등학교의 고등부 3학년은 매년 6월에 2주 간의 프로그램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조선 각지를 참관하고 있다.

야마모토 교수는 2010년경부터 연구와 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조선 학교에 출입하는 동안 <조국 방문>에서 돌아온 학생의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평양이 어떠했냐는 물음에 학생들은 "그곳 사람들은 소박하고 착하다.", "가난하지만 그곳의 생활은 아름답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야마모토 교수는 이해할 수 없었고, 조선의 긍정적인 면만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야마모토 교수에게 직접 조선을 방문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야마모토 교수 역시 학생들은 조선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고, 또 무엇을 들었는지, 조선에서의 학생들의 모습을 좀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다는 생각한 끝에 3차례의 예비 방문을 거쳐 올해 6월 동행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국적은 한국적, 일본적, 조선적 3가지이다. 예전에는 80%가 조선적이었지만 최근에는 75% 한국국적이고, 일본 국적은 거의 없고 나머지는 조선적이라고 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바로 못 가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 복잡하게 가야 하고, 한국 쪽에서도 다음부터 한국 여권을 발행해주지 않겠다고 회유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조선을 방문하고 있다. 조선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은 노래 가사와도 같이, '조국' 땅을 밟는 첫 순간, 학생들은 오른발로 내릴까, 왼발로 내릴까 하며 결국은 양 발로 첫 발을 내디딘다고 표현하였다.

야마모토 교수는 학생들과 모든 일정을 같이 할 수는 없었지만,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설방문을 함께하였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인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건을 주제로 하는 신천박물관에 가서 학생들이 심각하게 서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우는 모습도 보았고, 유격대행진곡을 부르면서 백두산을 내려올 때도 함께 하였다. 노래경연대회에서 "조국"의 학생들은 예술적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재일조선학생들은 재미있게 하려고 한다는 인상도 받았다고 한다. 판문

점을 방문할 때에는 학생들이 “몸은 일본에서 살지만 조선사람으로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끔 살아야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모습도 보았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2주간 있으면서 내 인생관, 조국관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야마모토 교수는 조선에 가서 학생들이 말하는 “조선”이라는 것을 조금이지만 실감할 수 있는 듯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으나 좋다라는 감각을 받았고, ‘소박’하고 ‘순박’하다라는 표현되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 역시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왜 “조국”이라고 하나는 야마모토 교수의 물음에, 학생들은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 ‘교복인 치마저고리를 입어도, 서투른 우리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 “조선사람임을 부정 안 받아도 되는 상쾌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 역시 위화감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일본 사회에서의 가치관과 조선에서 지도원들이 가르친 가치관과의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고, 종교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름대로 정리해서 자신만의 조국관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야마모토 교수는 정리하였다.

학생들은 일본에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조선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에서의 보도, 정보와 조선에서 보고 들었던 것과의 차이점 역시 느꼈다고 한다. 야마모토 교수는 프로파간다가 존재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감동하는 것은 어째서일지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과 만나 마음이 오가고 또 보고 싶다고 느끼는 감정과 또 조선을 방문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이 보다 감상적으로 ‘조국’이라고 생각시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분석하였다.

질의응답

질문: 외국인으로서 방문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다. 조선적인 아닌 학생들이 가는데 제재가 없는지 궁금하다.

답변: 53만엔 정도 들었고, 조선학생들은 20만엔정도 소요됐다. 일본국적은 상관없다. 한국적은 한국 측에서 북한에 가면 다시 여권 발급 안 해주겠다고 만류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간다.

질문: 조국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나름대로 조국관을 정리해왔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답변: 학생들을 인터뷰했지만 학생들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은 못하는 편이다.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일본 매스컴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직접 조선에 가서 보고 경험한 것도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서 북한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질문: 이러한 ‘조국방문’은 집단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라,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것만 체험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했을 때와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답변: 인정한다. 이러한 점은 북한 현지 조사에 있어서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코멘트: 정말 돌아가서 살 조국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Symbol으로써 유대감을 가지고 귀속하고 싶은 조국인 것 인가.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내용 면에서 달라지는 면이 있을 거 같다.

질문: 듣고 난 감상은 북한의 프로파간다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외국인으로서 선생님은 참여

하지 못하고 학생들만 참여한 것에 대해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군사시설에는 방문할 수 없었다. 프로파간다가 있다고는 본인도 항상 느낀다. 일단 일본에서 보는 조선의 이미지와, 조선에 가서 직접 보는 북한의 이미지의 Gap이 크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왜 조국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다. 일본에서 보는 북한의 이미지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서 보면서 자신이 조선학교에서 배운 모습을 투영하고 싶어한다고 생각된다.

질문: 일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습과 북한에 가서 실제로 본 부정적인 현실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해본 적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학생들도 일본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생들도 일본미디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북한에 직접 방문함으로써, 아 역시 북한에도 북한 나름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평양 사람들이 다 착한 척 진실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연기를 하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정말 그 사람들이 순박하다는 느낌 역시 받았다.

질문: 가서 일정 외에 돌아다닐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학생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친척들을 만나는 것도 미리 신청해야 가능하다.